

## 삶의 기쁨

기증자 / 김상수



이지만,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수술 전 제일 걱정이 된 것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였습니다. 멀쩡한 몸에 수술을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서는 당연히 탐탁지 않게 생각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 하는데 말릴 이유가 없으면서... 조금 감동이었죠. 이번 기회를 빌어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고통이나 아픔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단지 회복실 특유의 한기가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이동하며 기억을 곱씹었지만 생각나는 건 산소마스크 같은 것을 입에다 밀착시킨 것 밖에는 더 이상...

그러나 수술 후 병실에서 모래주머니는 조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4시간 이상을 엉덩이에 깔고 누워 있으려니 답답해 죽겠더군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왜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편안 했습니다. 휴양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지만 그냥 전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1차 자가헌혈과 신체검사를 받으러 병원엘 갔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럴 리는 없죠”라고 대답한 뒤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혈을 하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해 왔던 나쁜짓(?)을 보상하려면 어떤 좋은 일을 할까? 라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뒤 내린 결론이 헌혈이었습니다. 헌혈 한 번에 나쁜 짓 한 번 이렇게 상쇄를 시키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해서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B형 혈소판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분이 말씀해주신 병원으로 찾아 갔었습니다. 이제 5살을 넘긴 어린 여자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있는데 혈소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찾아 갔건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잔인하게 저에게 말씀하시길 한쪽 팔 혈관이 약해서 혈소판 현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99년 당시에는 한 팔로 혈소판 채취가 가능한 기계가 없어서 양쪽 팔을 다 써야 한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계시던 아이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냥 나오기가 미안해서 가지고 있던 현혈증을 드리니 “여기까지 찾아 오셨는데 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세요”라고 말씀하셔서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병실엔 모두 8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마스크를 했었고, 머리를 삭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두 배만 뽀록 튀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릴 도와주러 오신 분이란다 인사 드려야지”라고 하시는데 차마 인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을 도저히 쳐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나와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조혈모세포기증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에게 얘기 하곤 합니다. 그리고 글을 써서 보여 주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대견함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결코 돈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마음의 여유와 한층 성숙된 감정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수술을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 눈앞에 떨어지는 햇살이 단순히 느껴지는 따스함보다 이제는 완치가 된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과 해맑게 웃는 모습이 라면 말입니다.





# 두 번의 실패, 한 번의 열매

기증자/ 김선미 님(엘리사)



기증자 김선미 님과 가족

긴 밤. 내려앉던 하늘의 별빛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키 큰 유리창으로 빛나던 가을이었다. 무더운 여름날 걸려온 전화에 몇날 며칠을 가슴 설레며, 감사함을 하느님께 기도 드렸다. 몇 년 전 우연히 TV를 통해 조혈모세포기증을 결심하고 남편과 함께 우리는 한배를 탔다.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남편에게 먼저 조혈모세포기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무슨 이유인지 조혈모세포기증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게 또 다시 몇 개월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나에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들뜬 마음에 채혈도 하고, 건강진단



을 받기 위해 준비하려 하는데 환자분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나의 부족함이 너무 크게 느껴져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 했다. “죄 많은 이 몸을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1년이 지나려 할 때 쯤. 못한 내 기도에 하느님은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조혈모세포기증을 할 수 있으리라는 내 기대와는 달리, 난 예전에 건강했던 내가 아니었다. 큰 수술을 해야 할 입장이었고, 협회에서도 난감해했다. 그렇게 또 실패로 돌아가려나? 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 할 때, 협회에서 무리가 안 된다면 한번 해 보자는 전화에 난 마치 세상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막상 수술을 앞 둔 전날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그렇다고 또 다시 포기한 채 돌아 설 수 없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내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음날 수술실로 빨려들어 가듯 나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하느님께 기도 하였다.

“예수님.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진정 행복했습니다.”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믿음

이 온통 내 안에 평화로 가득 찼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작은 속삭임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나는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 뜨고 있었다. 행복한 순간순간이 물밀듯 밀려왔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녀석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엄마 수고했어요. 사랑해요”라고 달콤하게 속삭여 줬다. 남편의 묵직한 손길이 한참을 내 어깨를 두드려준다.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성당 레지오단장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이 일을 구태여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려 하지 않는다. 너무도 소중한 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술이 있는 후 난 그녀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 또 다시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지 기도한다.

수혜자로부터 편지도 받았지만 답장을 쓰지 못했다. 기억함이 날 부끄럽게 하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내 자신이 교만해질까 두렵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기쁜 마음으로 수술실을 향해 가려한다. 그분의 건강이 하루 빨리 나아 행복하길 바래본다.



#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기증자 / 이지영 님



기증자 이지영 님(왼쪽)과 홍보담당 임근영 사원

해외파에 토익 고득점 자에, 특이 이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 내가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를 발등에 불이 떨어진 4학년이 돼서야 생각해 보았고, 1년 동안은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즈음엔 계획한 일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보였고, 자신감도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온 메일은 나를 고민에 빠뜨렸다. 40대 남자의 유전자와 나와

일치하고, 내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내용... 바로 답장을 쓰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전화상으로도 어머니의 노발대발하시는 모습이 느껴졌다. 명백한 반대의견이었다. 끊임없이 어머니를 설득하고, 계속되는 반대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뜻밖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어머니를 설득하셨고 동의를 받아들 수 있었다.

코디네이터선생님과 연락한 후에는 내 자신이 풀어야 할 고민이 생겼다.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을 위한 3일의 입원 후, 회복을 위한 3주. 이 기간은 더 나은 조건의 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자격증 하나는 더 딸 수 있고, 토익점수도 올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늦춰지고 이리다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의 확답을 듣는 것은 그래서 어려웠다.

어느 날 곰곰이 나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경쟁'은 무엇 일까가 그것이었다. 고교 입시도, 대학입시도 큰 벽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쉽게 넘겼다. 그런데 정작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기 위해 수억마리의 정자와 단 하나의 난자의 결합이라는 엄청난 경쟁률도 넘기지 않았던가? 또 그러한 과정을 겪으신 분들의 도움 하나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사람 하나하나는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과학이자 철학이다. 그래서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조혈모세포 기증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교수님께서 연락 주셨다. 반신반의 하며 말씀드렸던 러시아 교환학생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난 무신론자이지만 운명을 믿는다. 하늘이 내게 3주의 휴가를 주시고, 1년의 좋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다. 나의 발전과 한 가족의 행복을 하늘은 그렇게 바랬나보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부모님 댁에서 휴식과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입원기간동안

만났던 수많은 인연과 다시 확인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은 내게 너무 귀중한 기억이다. 수혜자 가족 분의 감사편지도 너무 감사했다. 나를 비롯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려주신 수혜자분께 감사드린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언젠가 건강해지신 후 이 순간을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나눔의 기쁨

기증자 / 이상백 님



기증자 이상백 님과 가족

큰 아이가 감기인지 힘이 없고, 밥을 먹으려 하지도 않는데 배는 불러 있고 해서 시내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약을 받아서 먹어도 상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찾은 소아과에서 황달기운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종합병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1995년 9월 서울에 계시는 아이의 할아버지 집에서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예쁘게 부르고,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혈액검사, X-레이 촬영 등의 검사를 마치고,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듣는 순간, 하늘이 빙빙 도는 듯 한 느낌에 아무 생각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병

이 걸리는 것인가?

4살밖에 안된 어린아이의 생명을 건 투병 생활은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면서 엄마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고, 손녀의 병 수발을 드는 자부름 위해 할머니는 병원 문이 닳도록 다리품을 팔아야 했으며, 태어난 지 3개월 된 작은 아이는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져서 할머니를 엄마로 알고 지내야 하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남의 일이라고만 여겨지던 백혈병이라는 병이 내 아이에게 생겼다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아이의 투병 생활은 길어지지만 했고, 거의 3년이 다 되어서야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딸아이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힘들게 지내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현혈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고자 조혈모세포기증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딸아이가 다시 재발하여, 그 힘든 투병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담당 선생님께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듣고 기증자를 기다리던 중, 코디 선생님께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

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기증자가 최종 동의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한번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딸아이는 이번에도 잘 견뎌 주었고, 지금은 완치되어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병마와 잘 싸워준 딸아이, 힘든 병간호를 하며 곳곳하게 병상을 지켜준 아이의 엄마, 손녀와 자부를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애쓰신 어머니, 작은 아이를 키워 주신 장모님, 가정 문제로 자리를 자주 비워야 했던 직장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동료 분들, 이러한 모든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딸아이가 완치된 후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을 무렵,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코디 선생님께서 저와 조직적합성 항원(HLA)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병마와의 싸움에 지쳐 있을 환자와 그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기꺼이 기증하기로 동의 했습니다. 협회의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함께 건강검진 등을 하고, 수술을 하기 위한 입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추면서 끝까지 나의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의 조혈모세포를 받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기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찾아들 생각을 하니, 나 역시 큰 기쁨이 다가오면서 '바로 이런 것이 나눔의 기쁨이구나!' 하고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제게 이런 기쁨을 주

신 환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가 함께 아픔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꼭 완치되셔서 더욱 밝게 생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의학이 더 발달하여 앞으로는 감기약 먹듯이 이 병이 완치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힘내시고, 빨리 완치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동료들로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시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칭찬을 받거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자신도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또 한번의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엉덩이의 빠근한 느낌도 다 사라지고 수술 전과 동일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후에 아직도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 묻고 답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며, 작은 실천이 우리사회를 얼마나 밝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려 노력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라도 또 다시 나와 조혈모세포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면, 지금의 기쁨을 한번 더 느끼기 위해 준비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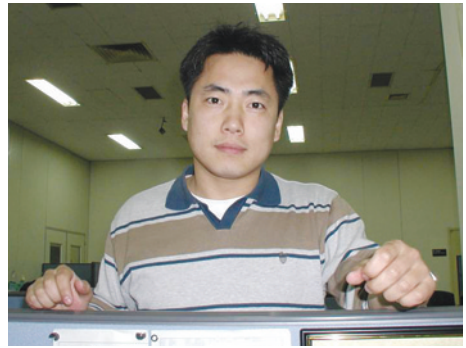


##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기증자 / 김철신 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랑을 준 덕으로 스스로를 조금은  
 씩스럽지만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분들이 무섭다(이 표현이 적당 할  
 듯)고 이야기하는 조혈모세포기증이라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즈음, 코디네이터선생님  
 으로부터 한통의 e-mail을 받았습니다. 마치  
 스팸메일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 “중요한 편지  
 입니다.”였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넘치  
 는 스팸메일에 그러려니 했죠.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기증등록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에서 이야기지만 현혈을 하면서 무엇을  
 작성하면 선물을 준다는 말에, 그만ㄱ... 했죠.  
 선물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짧은 생각에...여  
 하트, 제대를 하고 여러 해가 지나고 집으로  
 한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슬금슬금  
 뭔가 숨기는 눈치를 보이시길래 ‘나 몰래 집에  
 귀한 것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꼬치꼬치 캐  
 물으면서, 알게 된 것이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협회로부터 온 한부의 책자와 조혈모세포기증  
 에 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부  
 모님이 주신 몸이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지  
 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생각이었지만), 그리고  
 머리에서 잊혀질 때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  
 전에 기증을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  
 아보려 발버둥 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앞  
 에서 얘기한 이상하면서도 간결한 제목으로



온 e-mail(“중요한 편지입니다.”)에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열어보잖습니까? 혹시나가  
 역시나 하면서도, 그런데, 그 메일이 진짜 중  
 요한 편지였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는... 왜냐면, 제가 가족이 좀 됩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이 병이 걸렸더라면, 얼마나 그 누군  
 가를 기다릴까라는 생각이 철없는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설  
 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을 가  
 지고, “그기 조키는 한데, 빼에서 물을 뽑는 기  
 라서 내 맘에는 여~영 글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제 고향은 삼천포 위의 조그만 도  
 시, 진주입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내고 조혈모세포기증을  
 위한 신체검사와 수술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한 신청서에서  
 조혈모세포기증까지 물론 저의 의지가 있었겠  
 지만, 그렇게 되라고 이끌어준 내 주변의 상환  
 에 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주시던 코디  
 선생님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  
 으면 좋겠습니다.